

자연 친화적 공동체 학습으로의 초대

대안학교 이해하기

- 편집실 -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대안적인 학교를 의미한다.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동안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연 친화적 공동체 중심의 학교

대안교육은 19~20세기에 개발 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인간간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연과의 친화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성을 비인간화하는 교육에 대한 반기로 나타난 운동이다.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나 비정규학교에서 교육 이념 및 운영방식의 독특성을 가지고 기존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대안적인 학교의 형태를 말한다. 즉,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운동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교육법은 대안학교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먼저 제도교육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교육의 틀 속에 있는 경우로 일반학교와 같이 운영되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공사립학교, 거창고등학교, 참교육운동, 열린교육 등이 있다.

둘째, 제도교육 틀 곁에 있는 것으로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각종학교인 학력인정 고등학교와 같은 형태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영산성지 고등학교 등이 있다.

셋째, 제도교육 틀 밖에 있는 것으로 제도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이다. 민들레 학교, 숲속마을 작은 학교, 공부방 등이 있다.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학교형은 여름 혹은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대구의 민들레 학교, 경남 산청의 숲속마을 작은 학교, 서울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 부산 창조학교 등을 들 수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 형식인 것은 학생들이 학교

활동이 끝나고 방과 후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은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등이다.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화 교육

대안학교의 기본 이념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평화교육은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 계층간, 민족간, 국가간, 인종간의 화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적 공존, 지구와 우주와의 어울림에 대한 내용으로 체제를 초월해서 남한과 북한의 민족공동체 이념의 구현을 위한 것에 초점을둔다.

둘째, 노작교육은 페스탈로치의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의 교육원리에서 비롯한 것으로 꽃을 가꾸고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는 일 자체가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보는 것을 말한다.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는 체험을 통하여 자연에 아름다운 질서와 법칙이 있고, 우리 삶도 그 법칙 안에서만 편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노동은 문화의 원동력으로 개성의 실현방식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교육의 가장 귀한 방법의 하나라고 이해 한다.

일상생활을 통한 창조와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체험이 따르지 않는 읽

기, 쓰기, 셈하기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노동의 의미가 천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인간화 교육은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교육으로 소크라테스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또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삶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 목적을 출세하는 데 두지 않고 자기를 돌보아 자기를 최선으로 실현하는데 있다고 이해한다.

삶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아름다운 꿈을 키워주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인문교육(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독서교육 등), 최고의 가치는 개성의 실현으로 각자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교육을 강조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인간의 만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미래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